

계 열 문 항 2

<가>

꽤 오랫동안 힘들게 길을 걸어 로빈슨은 아무렇게나 쌓인 거대한 바위 더미 아래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어마어마한 삼나무로 가려진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동굴 안을 다 살피기에는 동굴이 너무 깊어서, 그는 동굴 속으로 들어섰다가 다시 나왔다. 대신에 그는 한눈에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바위 위에 오르기로 했다. 가장 높이 솟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서자 그가 와 있는 곳은 사방이 바다이고 사람의 사취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결국 무인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시간은 그럭저럭 흘러갔지만, 로빈슨은 점점 더 자신의 하루 일과를 잘 계획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진흙탕 속에 다시 떨어져 짐승처럼 살게 될까 봐 늘 두려웠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롯이 한 명의 인간으로 남아 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나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이라곤 노동과 규칙 그리고 섬에 있는 모든 자원을 샅샅이 조사하는 일뿐이었다. (중략)

로빈슨은 한 번도 외모 따위에 신경 쓴 적이 없었고, 특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울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느 날 ‘버지니아호’에서 가져온 상자에서 거울을 꺼내 거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수염이 길었고 얼굴에 많은 주름이 생긴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변한 게 없었다. 그렇지만 점잖고 엄숙한 얼굴 표정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것은 그에게서 떠난 적이 없는 일종의 쓸쓸함 같은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어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미소 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눈가에 주름을 잡고 입의 양쪽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헛일이었다. 불가능했다. 그는 미소 짓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지금 침울한 표정 속에 굳어서 나무처럼 뻗뻗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미소를 지을 상대가 없어서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웃어보려 했지만, 근육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계속 딱딱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슬퍼 가슴이 조이듯 아팠다. 섬에는 마실 것, 먹을 것, 잠자기 위한 집과 침대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지만 미소를 지어 보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얼어붙어 버린 것이다.

- 미셸 투르니에, 『방드르다, 야생의 삶』 중에서

<나>

우리의 커넥톰(connectome)*, 즉 신경세포 간의 전체 연결망은 우리의 현재 의식과 정체성을 담당한다.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관장하며,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관심을 쏟느냐는 현재 우리의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커넥톰의 상태에 달려있다. 커넥톰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외부 지향적인지 또는 내면 지향적인지에 좌우된다. 또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마다 관심의 초점은 상당히 다르다. 개인의 커넥톰도 끊임없이 변하지만 사람들 간 커넥톰 차이는 더 커지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성격 차이를 설명해준다.

우리 뇌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타인과 거리가 멀고 고립된 자기만의 행성에 있다는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르다는 말은 사실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각 유일무이하다는 생각은 정말 놀랍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DNA 암호처럼 독특하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 마음은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보석이지만, 모든 방향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세상의 교차로이기도 하다. 이 바쁜 교차로로 들어오는 정보의 거대한 출처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 마치 SF 영화처럼, 개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신경 활동의 패턴이 서로의 커넥톰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개인 간 DNA 정보의 수평적 이동과는 달리, 우리의 커넥톰 간 정보의 수평적 이동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정보는 끊임없이 커넥톰 간에 흐르며 우리의 뇌는 봉인된 보물 상자라기보다는 열린 문에 가깝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 내면의 자아라는 알맹이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이것이 나머지 세상과는

독립된 우리만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며, 우리의 존재와 유일무이한 '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흡잡을 데 없는 지능적 사기이다. 아마도 진실은 이럴 것이다. 우리 뇌는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지하도록 진화했으며, 우리의 현대 문화가 이런 개인주의적 관점을 조장하고 과장하지만, 한마디로 이것은 잔인한 허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독립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진화했을까? 간단히 말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분명 자아의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자아관을 갖게 된 이유이다. 따라서 이렇게 유용한 관점을 완전히 버리고 싶지 않으며, 버리고 싶다고 쉽게 버릴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경우라면 자아라는 허상을 객관적으로 허물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가 자기애적인 독백에 심취해 있을 때, 다른 주변 인물에 대한 의존성으로 관점을 돌리는 것이 이로우지 모른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다.

* 커넥톰(connectome): 뇌 속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회로도

<다>

최근 사람들의 인생관 중에서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은 너무 쉽게 상대주의적인 무관심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 각자는 모두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갑론을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식론적인 입장, 즉 이성이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가치에 대해 알기알부하며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관이 요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그들의 선택이며, 또 그렇게 선택된 인생은 존중받아야만 한다고들 말한다. 이런 상대주의는 사실 상호존중의 원칙에 부분적으로 뿌리 박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주의 그 자체는 개인주의의 한 분파이다. 개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각자는 무엇이 실제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자기 나름의 생각에 근거하여 자기 삶의 형태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상에 충실할 것과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런 자기실현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의거해 성립되어야 한다. 이런 자기실현의 내용 규정은 자기 이외의 타인은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결코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매우 친숙한 태도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널리 퍼져 있으며 1960년대 이래로 서구 사회에서 특히 강력하게 성장한, 자기실현의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으로 자기 진실성의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나 자신의 본연성·독자성에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만이 내가 명백히 제시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것을 명백히 표현해냄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본래적으로 나 자신에 속한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자기 진실성의 이상은 그 말의 정의에 따른다면 사회적 연관 관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생성되었음에 틀림없다.

2-1. <가>의 로빈슨이 처한 상황을 <나>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보시오. (300±30자)

2-2.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해 <다>에서 설명된 사회적 현상을 비판해 보시오. (600±60자)